



www.at.or.kr

중국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5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5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중국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소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소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 중국 위안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3일자 기준으로 작성. 1위안= 163.30원

1~5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중국



1. 김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4. 주류 (소주)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 중국 위안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5월 23일자 기준으로 작성. 1위안= 163.30원

스낵류

수요 감소 ▼ " 오리온 : 경쟁사 판촉행사로 고객 체감 가격 상승 "

중국 산둥성(山东省)에서 600개가 넘는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가열집단고분유한공사(家家悦集团股份有限公司) 회사의 구매담당자 Ms. Sun Caiyan에 따르면 오리온 제품의 체감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현재 오리온 제품의 경쟁사인 Copico 스낵은 모두 1위안씩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리온 제품은 별도의 판촉 및 세일즈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opico는 원래 오리온보다 1위안 정도 비싸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았지만 이번 프로모션으로 인해 오리온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줄였다고 했다. Ms. Sun은 이로 인해 오리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 수요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리온社 오감자]

수요 감소 ▼ " 중국에서 외면받기 시작한 밀크 초콜릿 "

중국에서 각종 수입 스낵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성도시사미사아국제무역유한공사(成都市思味思我国际贸易有限公司) 회사의 담당자 Ms. Guo는 5월 인터뷰에서 중국 내 밀크 초콜릿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살찌게 만드는 밀크 초콜릿을 기피하고 설탕 함유량이 낮고 담백하며 건강에 이로운 다크 초콜릿 섭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전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등 인체에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귀땀했다. 그녀는 건강을 중시하는 중국인 소비자가 늘고 있어 다크 초콜릿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Ida's and Fantastick 초콜릿]

가격 상승 ▲ " 원재료 값 상승에 타격받은 스낵 제품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유럽과 북미 지역의 수입 스낵 제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성도시사미사아국제무역유한공사(成都市思味思我国际贸易有限公司) 회사의 담당자 Ms. Guo는 자사에서 판매 중인 스낵 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헤이즐넛 가격이 폭등하면서 헤이즐넛이 원료로 사용되는 웨하스, 비스킷, 초콜릿 등의 제품 가격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Ms. Guo는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오는 1년 이내에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최소 5%에서 심할 경우 1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Signature Snack SQUARZ 헤이즐넛 맛]

주류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중국인 입맛을 사로잡은 뉴질랜드산·호주산 음주류 ”

각종 한국 및 수입 식품, 화장품을 유통 중인 가가열집단고분유한공사(家家悦集团股份有限公司) 회사의 구매담당자 Ms. Sun Caiyan은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산 음주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Ms. Sun은 최근 중국에서 뉴질랜드산 및 호주산 음주류 제품이 수입세금혜택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했다 밝혔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에 체결된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으로 인해 관세율이 0%이며, 호주 와인도 최근 체결된 중국-호주 FTA로 관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호주산 와인도 몇 년 안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와인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호주 와인]

음료류

수요 증가 ▲ “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말레이시아 두리안 커피 ”

상해지역에 소재하며 말레이시아 커피를 직수입 중인 상해경봉상무유한공사(上海擎鹏商贸有限公司) 회사의 담당자 Mr. Xu는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커피가 소비자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고 전했다. 두리안 커피는 두리안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하여 출시된 제품으로 중국 내 두리안 맛 음료제품이 적은 것에 착안,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이라 밝혔다. Mr. Xu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이미 1300포에 가까운 제품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많고 문화가 다양한 중국의 특성상 이 같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현재 대체 제품이 적은 두리안 커피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 커피]